보고서

시가총액 국내 1위 對 글로벌 1위 경영성과 비교

2024. 3.

FKI 한국경제인협회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목 차

Ⅰ. 배경 ····· 1

Ⅱ. 전체 경영성과 비교 ····· 3

ⅰ. 수익성 ····· 3
ⅱ. 안정성 및 활동성 ····· 4

Ⅲ. 섹터별 경영성과 비교 ····· 5

ⅰ. 산업재·소재·에너지 ····· 5
ⅱ. 소비재 ····· 5
ⅲ. 미디어 및 통신·IT ····· 6

Ⅳ. 韓 주요 산업 1:1 비교 ····· 8

ⅰ. 수익성 ····· 8
ⅱ. 안정성 및 활동성 ····· 9

Ⅴ. 시사점 ····· 11

- 요 약 -

□ 배경

○ 세계 10위권에 속한 한국의 경제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 대표 기업의 수익성을 글로벌 대표 기업과 비교함으로써 경쟁력 점검

□ 전체 경영성과 비교

○ (수익성) 글로벌 1위의 EBIT이익률(19.2%)은 국내 1위(9.5%)의 2.0배

* EBIT이익률(≒영업이익률) = EBIT / 매출액

○ (안정성 및 활동성) 글로벌 1위(88.9%)의 채무비율은 국내 1위(56.2%)의 1.6배로, 한국 1위보다 더 많은 레버리지 활용

* 채무비율(D/E비율) = 채무(Debt) / 자기자본(Total Equity)

□ (글로벌 1위 대비) 섹터별 경영성과 비교

○ 산업재・소재・에너지는 비용 부담으로 매출액 대비 수익성이 낮음

* EBIT이익률 기준, 글로벌-국내 격차는 산업재 2.1배, 소재 2.2배, 에너지 3.7배

○ 미디어 및 통신・IT는 비교적 수익성 지표가 양호한 편

□ 韓 주요 산업 1:1 비교

○ '반도체'와 '가전제품'은 순이익률 단계에서 크게 격차 벌어져 법인세 및 이자비용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반도체'는 EBIT이익률(2.4배)→순이익률(7.3배), '가전제품'은 EBIT이익률(2.6배)→순이익률(6.2배)

□ 시사점

○ ❶비용 경감 위한 법인세 조정, ❷정책적 신용 보증 규모 확대, ❸자본 접근성 강화 등 국내 기업의 낮은 수익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Ⅰ 배경

□ 주요 경제지표에서 한국은 꾸준히 세계 10위권 내외의 위치 점유

○ '22년 기준 한국은 GDP 13위(194개국), 민간소비 15위(147개국), 정부소비 13위(147개국), 수출액 9위(155개국)에 위치

○ '12년 기준 한국은 GDP 14위(210개국), 민간소비 15위(177개국), 정부소비 15위(174개국), 수출액 7위(181개국)에 위치하여 10년간 큰 등락 없음

<한국 주요 경제지표 추이('12년~'22년)>

거시경제지표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GDP	127.8	137.1	148.4	146.6	150.0	162.3	172.5	165.1	164.4	181.8	167.4
민간소비지출	65.5	69.2	74.1	71.2	71.9	77.2	82.9	80.3	76.3	83.6	80.5
정부소비지출	18.8	20.5	22.6	22.1	22.9	25.0	27.7	28.2	29.7	33.0	31.4
수출액	69.1	70.3	71.0	63.0	60.2	66.4	72.0	64.9	59.8	76.2	80.8

* 자료 : Worldbank Dataset(단위 : 백억 달러)

□ 한국의 세계 10위권 경제규모 유지 가능성 점검을 위해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

○ 한국의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한국 경제 규모를 유지·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시장경쟁력 제고 필요

*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9%('23~'30년) → 0.7%('41~'50년) 하락 전망(자료 : KDI)

○ 글로벌 대표 기업과 국내 대표 기업의 경영성과를 비교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現 위치 점검

-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 세부 산업(163개)별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글로벌 1위 기업과 국내 1위 기업을 대표 기업으로 선정

* 시가총액은 현 재무 상황과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종합 평가 반영된 지표

자료 개요

* 자료 : Capital IQ
* 대상 : 300개사(글로벌 163개사 + 한국 137개사)
  - 한국의 경우, 26개 세부 산업에서 상장된 기업 없음
* 산업분류 기준 : S&P capital IQ의 글로벌 산업 분류 기준(GICS)을 준용
  - 단계별 산업분류(상위→하위) : 섹터(11개)→산업군(25개)→산업(74개)→세부 산업(163개)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펀드(ETF 등)는 제외
* 자료 출처에서 데이터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
* 상장사는 '23.12.28 기준 해당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 평균 계산 시 이상치(Outlier)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Trimmean 기법 사용
  - Trimmean(±5%) : 상하위 5% 값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 계산

Ⅱ 전체 경영성과 비교

□ **(수익성)** 글로벌 1위는 국내 1위보다 매출액 대비 많은 이익 창출

<수익성비율(Profitability ratio)>

총이익률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 / 매출액
EBIT이익률(≒영업이익률)	EBIT(이자및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매출액
순이익률	순이익 / 매출액

* Capital IQ에서 영업이익률(Operating margin) 데이터가 제한된 관계로, 영업이익과 비슷한 EBIT를 대신 사용하여 기업 경영활동의 수익성을 나타냄

○ 글로벌 1위의 '22년 평균 매출총이익률(1.1배)은 국내 1위와 비슷한 반면, EBIT이익률(2.0배)·순이익률(2.5배)은 국내 1위보다 높음

- EBIT는 매출총이익에 판매비와관리비*, 연구개발비 등을 차감한 지표로, 해당 비용에서 글로벌-국내의 수익성 격차 주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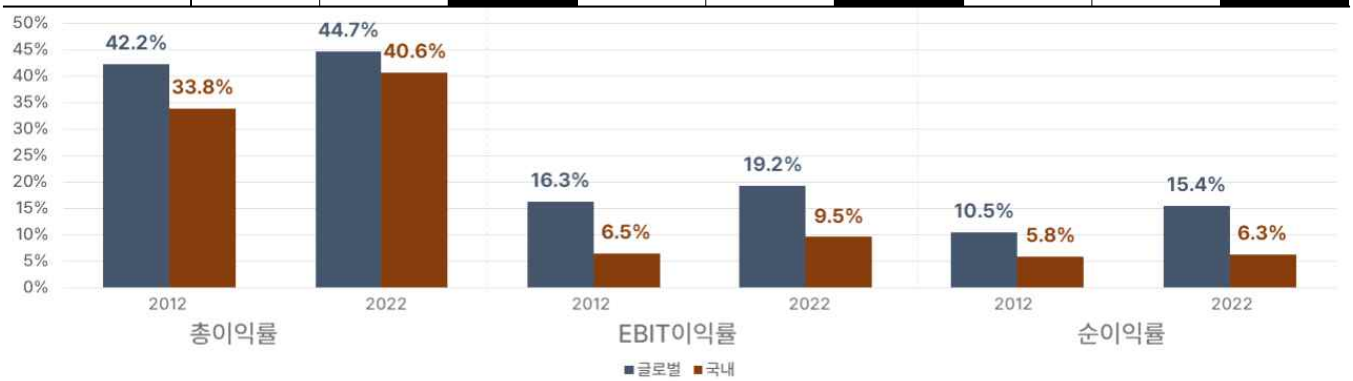
* 판매비와관리비 : 제품 생산 및 판매하는 과정에 수반되어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비용으로, 광고비·판매수수료·임대료·급여 등으로 구성

○ '12년과 비교 시, '22년 순이익률에서 국내 1위의 증가율(7.4%)이 글로벌 1위의 증가율(31.8%)을 하회하여 격차가 심화함

- 순이익은 EBIT에 이자비용·법인세비용을 차감한 지표로, 지난 10년간 국내 1위는 글로벌 1위에 비해 이자 및 조세 부담 증가한 것으로 추정

<국내 1위-글로벌 1위 수익성 비교('12~'22)>

	총이익률			EBIT이익률			순이익률		
	2012	2022	증가율	2012	2022	증가율	2012	2022	증가율
글로벌(A)	42.2%	44.7%	+5.6%	16.3%	19.2%	+14.9%	10.5%	15.4%	+31.8%
국내(B)	33.8%	40.6%	+16.6%	6.5%	9.5%	+32.4%	5.8%	6.3%	+7.4%
격차(A/B)	1.2배	1.1배		2.5배	2.0배		1.8배	2.5배	



□ **(안정성 및 활동성)** 글로벌 1위는 국내 1위에 비해 타인자본 조달 비중이 큼

<안정성비율 및 활동성비율(Stability ratio & Activity ratio)>

안정성	**채무비율**(D/E비율)*	채무(Debt) / 자기자본(Equity)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Current liabilities)
활동성	**매출채권회전율**	매출액 / 평균매출채권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원가 / 평균재고자산

*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채비율은 '부채총계(Total liabilities) / 자본총계(Equity)'이나, Capital IQ에서는 채무(Debt)를 사용하여 차입 의존 수준을 명료하게 나타냄

○ 글로벌 1위는 국내 1위 대비 '22년 평균 채무비율이 1.6배, '22년 평균 유동비율이 0.8배 수준으로 장단기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하는 양상

- 글로벌 1위의 높은 수익성을 감안하면, 높은 레버리지 비중은 차입을 통한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일 수 있음

○ 글로벌 1위 '22년 평균 매출채권회전율(10.4회)·재고자산회전율(10.6회)은 국내 1위 평균 매출채권회전율(11.5회)·재고자산회전율(10.2회)과 비슷

- 회전율은 자산을 현금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낸 지표로, 국내 1위는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을 현금화하는 속도가 글로벌 1위와 비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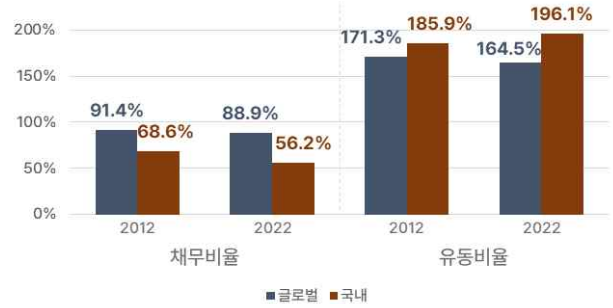
○ 국내 1위의 장단기 지급능력은 글로벌 1위에 비해 10년간 상대적으로 증가

- 국내 1위의 '22년 평균 채무비율은 '12년 대비 21.9% 감소, 유동비율은 5.2% 증가해 장단기 레버리지 활용이 줄어듦

- 국내 1위의 '22년 평균 매출채권회전율은 '12년 대비 12.4% 증가하여 글로벌 1위(-14.2%)와 달리 매출채권 회수 속도가 빨라짐

<국내 1위-글로벌 1위 안정성 및 활동성 비교('12~'22)>

	채무비율			유동비율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2012	2022	증가율	2012	2022	증가율	2012	2022	증가율	2012	2022	증가율
글로벌(A)	91.4%	88.9%	-2.8%	171.3%	164.5%	-4.1%	11.9회	10.4회	-14.2%	14.2회	10.6회	-33.5%
국내(B)	68.6%	56.2%	-21.9%	185.9%	196.1%	+5.2%	10.1회	11.5회	+12.4%	12.7회	10.2회	-24.7%
격차(A/B)	1.3배	1.6배		0.9배	0.8배		1.2배	0.9배		1.1배	1.0배	



Ⅲ 섹터별 경영성과 비교

□ **(산업재·소재·에너지*)** 국내 1위의 글로벌 1위 대비 낮은 수익성은 매출에서 각종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이 주된 요인

* 산업재·소재·에너지는 가치사슬에서 비교적 전방산업에 가까운 섹터이며, 산업재에는 기계·중장비·전지, 소재에는 화학·금속, 에너지에는 정유사 등 포함

○ (수익성) 산업재·소재·에너지 국내 1위는 글로벌 1위 대비 전반적으로 매출액 대비 적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

- 산업재는 글로벌 1위가 국내 1위 대비 평균 순이익률이 3.4배 높아, 글로벌-국내 격차의 주된 요인이 법인세 및 이자비용일 것으로 추정

- 소재는 글로벌 1위가 국내 1위 대비 평균 총이익률이 2.3배 높아 글로벌-국내 격차의 주된 요인이 매출원가일 것으로 추정

- 에너지는 글로벌 1위가 평균 총이익률(3.6배)·EBIT이익률(3.7배)·순이익률(3.4배) 모두 국내 1위보다 높아 비용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

○ (안정성 및 활동성) 에너지 글로벌 1위는 평균 채무비율(0.7배), 매출채권(2.1배)·재고자산(1.3배) 회전율을 고려할 때, 국내 1위 대비 지급능력 양호

<산업재·소재·에너지의 국내 및 글로벌 1위 기업 평균 재무비율('22)>

재무비율		산업재			소재			에너지		
		글로벌(A)	국내(B)	격차(A/B)	글로벌(A)	국내(B)	격차(A/B)	글로벌(A)	국내(B)	격차(A/B)
수익성	총이익률	37.2%	32.8%	1.1배	38.9%	16.8%	2.3배	36.9%	10.4%	3.6배
	EBIT이익률	17.6%	8.4%	2.1배	18.1%	8.0%	2.2배	19.0%	5.1%	3.7배
	순이익률	13.4%	4.0%	3.4배	15.3%	6.0%	2.5배	11.8%	3.5%	3.4배
안정성 및 활동성	채무비율	116.5%	42.7%	2.7배	73.2%	50.7%	1.4배	57.6%	81.6%	0.7배
	유동비율	144.0%	202.3%	0.7배	172.6%	166.7%	1.0배	128.9%	200.9%	0.6배
	매출채권회전율	6.7회	10.5회	0.6배	7.9회	9.2회	0.9배	23.1회	10.9회	2.1배
	재고자산회전율	14.1회	13.6회	1.0배	5.0회	5.4회	0.9배	12.8회	10.0회	1.3배

□ **(소비재*)** 국내 1위는 글로벌 1위와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영 성과를 보이는 가운데, 내수 위주의 필수소비재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큰 격차

* 임의소비재(Consumer Discretionary)는 비교적 장기에 걸쳐 소비되고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재화로써, 자동차·가전제품·의류·레저 등이 있음

* 필수소비재(Consumer Staples)는 비교적 단기에 걸쳐 소비되고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는 재화로써, 음식·화장품·생필품 등이 있음

○ (수익성) 임의소비재는 글로벌 1위와 국내 1위 간 평균 수익성 격차(1.0배~2.0배)가 크지 않은 반면, 필수소비재는 격차 큼(1.3배~2.7배)

- 한국의 경제성장이 정체되면서 내수 위주의 수요층을 보유한 필수소비재의 추가적인 시장 개척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이 배경일 가능성

○ (안정성 및 활동성) 글로벌 1위와 국내 1위 간에 안정성(1.0배~1.2배)과 활동성(0.8배~1.4배)의 격차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음

○ 글로벌 1위와 국내 1위의 유동성 관리 구조가 비슷하여, 수익성 격차는 규제 환경·내수 정체 등 비재무적 요인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추정

<소비재의 국내 및 글로벌 1위 기업 평균 재무비율('22)>

재무비율		임의소비재			필수소비재		
		글로벌(A)	국내(B)	격차(A/B)	글로벌(A)	국내(B)	격차(A/B)
수익성	총이익률	39.8%	40.2%	1.0배	44.8%	35.3%	1.3배
	EBIT이익률	16.0%	9.0%	1.8배	17.1%	6.4%	2.7배
	순이익률	11.6%	5.7%	2.0배	11.7%	4.3%	2.7배
안정성 및 활동성	채무비율	66.1%	57.3%	1.2배	82.1%	75.8%	1.1배
	유동비율	185.3%	193.5%	1.0배	130.1%	126.7%	1.0배
	매출채권회전율	13.2회	15.5회	0.9배	15.8회	13.4회	1.2배
	재고자산회전율	10.5회	7.3회	1.4배	7.7회	9.5회	0.8배

□ **(미디어 및 통신·IT*)** 타 섹터와 비교 시 평균 수익성, 안정성 및 활동성에서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

* 미디어 및 통신·IT는 디지털 정보의 생성·공유와 밀접한 섹터로, 미디어 및 통신에는 통신·웹 플랫폼·엔터테인먼트, IT에는 소프트웨어·전자제품·반도체 등 포함

○ (수익성) 미디어 및 통신은 글로벌 1위와 국내 1위 간 격차(0.9배~1.2배)가 크지 않으며, IT는 타 섹터와 비슷한 격차(1.2배~2.3배) 보임

○ (안정성 및 활동성) 재고 판매흐름은 미디어 및 통신에서 글로벌 1위가 국내 1위보다 원활치 못한 반면, IT에서 글로벌 1위가 국내 1위보다 양호한 모습

- 미디어 및 통신의 경우, 글로벌 1위는 국내 1위 대비 채무비율(2.9배)이 높고, 재고자산회전율(0.6배)은 낮은 모습

- IT의 경우, 글로벌 1위는 유동비율(0.7배)이 국내 1위 대비 낮아 단기 지급능력은 미흡하나, 재고자산회전율(2.3배)이 높아 재고 판매 원활

<미디어 및 통신·IT의 국내 및 글로벌 1위 기업 평균 재무비율('22)>

재무비율		미디어 및 통신			IT		
		글로벌(A)	국내(B)	격차(A/B)	글로벌(A)	국내(B)	격차(A/B)
수익성	총이익률	57.5%	66.5%	0.9배	50.5%	41.0%	1.2배
	EBIT이익률	17.5%	14.7%	1.2배	24.9%	12.1%	2.1배
	순이익률	12.5%	10.2%	1.2배	22.5%	9.7%	2.3배
안정성 및 활동성	채무비율	86.3%	29.9%	2.9배	62.5%	30.5%	2.0배
	유동비율	180.6%	215.2%	0.8배	144.2%	205.7%	0.7배
	매출채권회전율	11.0회	7.6회	1.4배	9.6회	7.7회	1.2배
	재고자산회전율	14.8회	26.2회	0.6배	12.3회	5.2회	2.3배

Ⅳ 韓 주요 산업 1:1 비교

□ 한국의 주요 산업 8개 선정*하여 각 1위 기업의 재무비율 1:1 비교

* 주력·첨단 산업 및 수출 주요 품목 등 주요 산업 중 ❶GICS의 '세부 산업'과 대응되며, ❷1위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요 산업 목록>

주요 산업	GICS 세부 산업
반도체	Semiconductors
전자제품	Technology Hardware, Storage and Peripherals
가전제품	Consumer Electronics
자동차	Automobile Manufacturers
자동차 부품·장비	Automotive Parts and Equipment
석유화학	Commodity Chemicals
석유제품	Oil and Gas Refining and Marketing
바이오	Biotechnology

□ **(수익성)** 글로벌-국내 격차가 큰 기업은 각 단계별로 '석유제품'(총이익률), '가전제품'(EBIT이익률), '반도체'·'가전제품'(순이익률)

○ '석유제품'은 글로벌 1위의 총이익률이 한국 1위 기업의 3.6배로 타 산업보다 큰 격차가 나타나 국내 1위의 매출원가 부담이 큼을 보여줌

○ '반도체(7.3배)'와 '가전제품(6.2배)'은 순이익률 단계에서 글로벌-국내 격차가 크게 벌어져 국내 1위의 법인세·이자비용 부담이 큼을 보여줌

<주요 산업의 수익성 지표('22)>

주요 산업	총이익률			EBIT이익률			순이익률		
	글로벌(A)	국내(B)	격차(A/B)	글로벌(A)	국내(B)	격차(A/B)	글로벌(A)	국내(B)	격차(A/B)
반도체	64.9%	35.0%	1.9배	37.3%	15.3%	2.4배	36.2%	5.0%	7.3배
전자제품	43.3%	37.1%	1.2배	30.3%	14.4%	2.1배	25.3%	18.1%	1.4배
가전제품	27.2%	24.2%	1.1배	11.2%	4.3%	2.6배	8.9%	1.4%	6.2배
자동차	25.6%	19.9%	1.3배	16.8%	6.9%	2.4배	15.4%	5.2%	3.0배
자동차 부품·장비	14.5%	11.5%	1.3배	6.4%	3.9%	1.6배	4.8%	4.8%	1.0배
석유화학	21.5%	19.3%	1.1배	10.9%	5.8%	1.9배	8.3%	3.6%	2.3배
석유제품	32.0%	9.0%	3.6배	11.4%	5.0%	2.3배	8.7%	2.0%	4.3배
바이오	71.5%	45.2%	1.6배	39.5%	28.3%	1.4배	20.4%	23.5%	0.9배

□ **(안정성 및 활동성)** 안정성은 주요 산업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활동성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1위가 국내 1위보다 근소하게 양호한 경향

○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장비', '바이오'는 장기(채무비율), 단기(유동비율) 모두 국내 1위가 글로벌 1위보다 지급능력 양호

- '전자제품'과 '바이오'의 경우, 다른 지표를 감안할 때* 글로벌 1위의 낮은 안정성비율은 레버리지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임

* 글로벌 1위는 국내 1위 대비 수익성·활동성 모두 양호한데 타인자본의 비중만 크므로, 차입을 통해 매출 규모를 키움으로써 이익 규모를 확대하기에 유리

○ '자동차', '석유화학'은 장기(채무비율), 단기(유동비율) 지급능력이 모두 국내 1위가 글로벌 1위보다 떨어져, 상대적으로 취약한 재무구조 보유

<주요 산업의 안정성 지표('22)>

주요 산업	채무비율			유동비율		
	글로벌(A)	국내(B)	격차(A/B)	글로벌(A)	국내(B)	격차(A/B)
반도체	44.5%	39.2%	1.1배	665.0%	144.8%	4.6배
전자제품	261.4%	2.9%	89.8배	87.9%	278.9%	0.3배
가전제품	46.5%	54.0%	0.9배	63.2%	123.0%	0.5배
자동차	12.5%	124.6%	0.1배	153.2%	129.8%	1.2배
자동차 부품·장비	23.3%	9.6%	2.4배	186.2%	223.6%	0.8배
석유화학	16.0%	42.6%	0.4배	221.6%	180.1%	1.2배
석유제품	31.7%	116.9%	0.3배	112.4%	116.0%	1.0배
바이오	373.6%	18.5%	20.2배	96.4%	226.4%	0.4배

* 글로벌-국내의 대소관계를 바탕으로 분류 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국내 1위가 글로벌 1위에 비해…)		채무비율	
		장기 양호(국내<글로벌)	**장기 미흡**(국내>글로벌)
유동비율	**단기 양호**(국내>글로벌)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장비 바이오	가전제품 석유제품
	단기 미흡(국내<글로벌)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 '바이오'는 매출채권회전율(3.3배), 재고자산회전율(2.4배) 모두 글로벌-국내 격차가 상대적으로 커 국내 1위는 글로벌 1위에 비해 유동성 관리 애로

○ '전자제품'은 재고자산회전율의 글로벌-국내 격차가 9.5배로 매우 큰데, 이는 글로벌 1위의 재고자산회전율이 38.8회로 월등히 높은 데서 기인

* 재고 관리가 상기와 같이 탁월한 경우, 일반적으로 공급망 관리를 통한 최소화된 원자재·부품 조달 적체 및 제품 이미지 관리를 통한 높은 로열티의 수요층 보유

<주요 산업의 활동성 지표('22)>

주요 산업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글로벌(A)	국내(B)	격차(A/B)	글로벌(A)	국내(B)	격차(A/B)
반도체	7.6회	6.6회	1.2배	4.3회	2.4회	1.8배
전자제품	14.5회	7.9회	1.8배	38.8회	4.1회	9.5배
가전제품	5.6회	10.2회	0.6배	7.7회	6.6회	1.2배
자동차	31.9회	27.8회	1.1배	6.5회	8.8회	0.7배
자동차 부품·장비	5.1회	5.9회	0.9배	5.4회	9.6회	0.6배
석유화학	7.9회	7.5회	1.1배	5.5회	4.2회	1.3배
석유제품	32.6회	14.8회	2.2배	5.0회	7.2회	0.7배
바이오	5.5회	1.7회	3.3배	4.9회	2.1회	2.4배

Ⅴ 시사점

□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 강화 위해 낮은 수익성 제고 필요

○ 법인세 인하를 통한 제반 비용 경감

- 판관비·연구개발비(EBIT이익률)과 법인세·이자비용(순이익률) 단계에 수익성이 글로벌 1위 대비 떨어지는 양상은 국내 기업 전반에서 발생

* 특히 산업재(섹터), 반도체·가전제품(주요 산업)은 법인세·이자비용의 부담에 따른 글로벌 1위 대비 수익성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남

○ 기업의 신인도를 정책적으로 보장하고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기업이 레버리지를 활용한 사업 전략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

- ❶투자 및 R&D 인센티브, ❷정책보험 및 신용보증 프로그램 확대, ❸금융 규제 완화 등의 정책적 수단 동원 필요